다산포럼

언론인, 정계로 가는 까닭

김 민 환

이명박 캠프에 들어간 언론인의 면면이 지면에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누가 신문사나 방송사를 창설한다 해도 그만한 인재들을 그 정도로 스카우트할 수 있을지 모를 만큼 쟁쟁한 언론인들이 이 후보를 돕고 있는 모양이다. 이 후보 쪽에 유난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대선 후보 캠프에도 전 현직 언론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제2의 정동영을 꿈꾸며

왜 선거철만 되면 언론인들이 대선 후보 주변으로 몰려들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언론인 출신 가운데 정계로 나가 성공한 예가 많다. 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힌 정동영 후보가 그 좋은 예다. 그는 문화방송의 앵커로 이름을 날리다 정계로 가 일약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지금 여야 정당에는 제2의 정동영을 꿈꾸는 언론인 출신이 부지기수로 많다.

사실 언론계 출신을 반기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일부 기업이 홍보분야에 언론인을 영입하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홍보업무란 현직 언론인을 섬겨야 하는데 구직이 현직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하기 십상이어서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 다른 분야에서는 아예 언론인 출신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계는 다르다. 정치와 언론은 상호 이용가치가 매우 높다. 적응하기도 쉽다. 그래서 여건이 무르익으면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캠프로 간다.

언론분야에 유난히 지원기구나 유관기관이 많아 위험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유인(誘因)이다. 여러 부처 가운데 문화관광부만큼 산하에 많은 기관을 거느린 부처도 드물다. 이런 기관의 임원 자리를 캠프 소속 전직 언론인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전현직 언론인들이 선거캠프에 몰려드는 데는 언론계의 내부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50대 초중반에 정년을 맞는다. 50이면 이제 천명을 아는 나이로 언론을 천직으로 삼아 경륜을 펼 나이인데 세상일을 알만 한 나이가 되자 곧 언론계를 떠나야 한다.

정년이 짧은 것도 문제지만 정년을 채우는 언론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우리 언론계에서는 50대 무렵일 때 같은 기(期)가 윗자리에 오르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던진다. 기자로서 유능한 이와 간부로서 유능한 이가 따로 있을 법한데 아무리 유능한 기자라 할지라도 제때 간부가 되지 못하면 기자직마저 버려야 한다. 알다가도 모를 관행이다. 유능한 언론인 가운데는 그렇게 하여 표표히 언론계를 떠난 이가 많다.

방송계는 접어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문 산업만은 이런 고용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사정이 나아지자 우리나라는 몰라보게 노령화했다.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은 새로운 매체에 익숙하겠지만 50대 중반이 넘으면 뭐니 뭐니 해도 신문에 집착한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무시 못 할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50대중반 못넘기는 고용환경

우리 신문은 전통매체에 대해 애정이 없는 청년층에 끊임없이 러브 콜을 보내지만, 그들 보다는 충성도 높고 영향력 있는 50대 이상 연령층을 주목해야 한다. 과녁을 그렇게 바꾸자면 언론인 정년도 최소한 5~6년은 늘려야 한다.

물론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를테면 임금 피크제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함부로 부려먹지 못할 고임금의 고참 두어 명을 자르면 빠릿빠릿한 젊은 기자 대여섯을 쓸 수 있는 셈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경영진이 정년 연장에 동의할 리 없다. 경영진의 임금 부담은 줄이고 언론인의 일할 기회는 보장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어쨌든, 50대를 다시 봐야 새 길이 열린다.

〈고려대 신방과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남북정상회담과 우리밀

최 강 은

지난 12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를 올해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노벨위원회의 선정이유는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알렸으며,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기초를 닦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기후변화가 몰고올 재앙을 전 인류에게 전파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등은 무차별적인 자연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자연환경의 파괴는 반드시 농업환경의 파괴를 수반함으로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의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은 농업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회담에서 도출된 지난 10·4선언은 농업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성과이며 이는 또한 남북 양측이 실질적 내용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향후 추진할 경협사업 가운데 농업은 남과 북에 모두 중요한 분야이다.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의 회생과 발전은 물론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북한에 있어 농업발전은 커다란 현안이다.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완화시키고 이로 인해 식량수입을 줄이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훼손된 산림이나 낙후된 기반시설이 복구되어 북한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농업발전으로 인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것이다.

농업분야의 협력개발은 남북한 농업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다.

농업부문 경협사업을 통해 우리의 자본과 기술, 시장경험과 북한의 토지 및 노동력을 결합하여 북한 농업발전을 가속시키며 한편으론 우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여 향후 통일농업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2030년이 되면 세계인구는 89억명, 곡물생산량은 22억t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생산량으로는 현재 멕시코 수준의 연간 곡물 소비량 400kg을 가정할 때 55억명 밖에 부양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남북한의 겨울철 유휴농경지 100만ha에 우리밀을 재배한다면 곡실로는 400만t, 사료용인 총체밀로는 100만t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은 식량 및 자급률을 높일 수 있으며,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흡수를 통한 대기정화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우리밀 1ha 재배시 이산화탄소 흡수는 6.13t이며 ▲토양유실방지 41.4톤 ▲유기성 폐기물 소화량 3.04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ha당 165만원 이상의 공익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밀만 가지고도 식량난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며 기후변화 협약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장〉

우체통 드물어 편지 부치기 큰 불편

요즘 편지 부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시내 곳곳에 있던 우체통이 철거돼 찾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골목마다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었고, 어느 가게에 가더라도 우표를 쉽게 살 수 있었다.

인터넷과 통신매체의 발달로 편지나 엽서를 쓰는 일이 줄어들었기에 우체통의 필요성이 그만큼 적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어른들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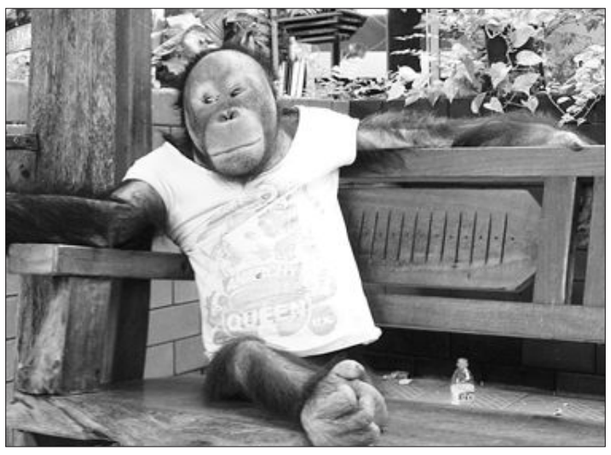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서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러 직접 편지 쓰기를 즐기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우체통은 분명히 우리들 주변에 있어야 할 시설물이다. 우체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일방적으로 철거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적당한 위치마다 우체통을 계속 유지해 관리했으면 한다. ▲우향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찰칵! 동물세상

사람의 이웃, 오랑우탄



오랑우탄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섬에만 살고 있다. 예전에는 동남아 전역에 분포돼 있었지만 인간의 서식지 개발로 인해 고립된 섬까지 몰렸고 결국 옴짝달싹 못한 채 눈요깃감 정도로 전락해 버렸다.

이 오랑우탄은 침팬지, 고릴라 다음으로 유전자상 90%까지 인간과 닮은 동물이다.

오랑우탄은 같은 유인원 중에서 가장 온순하고 친화적인 동물이다. 길들여서 사진 모델로 쓰기에도 적합하다.

오랑우탄을 보면 마치 이웃의 착한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을 받는다. 동물들은 대개 같은 종끼리 모이고 같은 종이 없으면 비슷한 모양의 동물들과 뭉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동물원에서 가장 붐비는 곳 역시 원숭이 우리 앞 인것을 보면 사람도 비슷한 것 같다.

이 때문에 오랑우탄을 본 뒤 반드시 사진을 함께 찍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런데 오랑우탄 주인이 자꾸 웃을 입히려 하는 것이다.

서로를 통하게 하는, 친밀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스킨십. 나를 비롯한 동물 사육사가 스킨십을 즐기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툭 튀어 나온 오랑우탄의 배와 배꼽을 만지고 싶은 개인적 바람은 손님을 지극히 배려하는 주인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 최 종 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무리한 다이어트 않게 여성복 사이즈 다양화를

백화점에서 원피스를 사려는데, 55사이즈를 입었다가 지퍼가 올라가지 않는 경험을 했다. 많은 여성들이 최근 옷 사이즈가 부쩍 줄어든 것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을 것이다. 각 브랜드마다 크기가 다르겠지만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옷 사이즈가 바뀐 것 같다.

백화점 직원도 "10년 전 44사이즈와 지금의 55사이즈가 비슷한 치수"라고 했다.

그래서 체구가 커서 큰 옷을 입는 여성은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구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몸에 끼워 입다가 좌절하기도 한다.

옷을 작게 만든다고 의류 회사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옷 맵시를 살릴 수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옷에 자신의 몸을 맞추기 위해 일부 여성들은 자신이 이 정도도 못 입는 우람한 몸이라며 다이어트에 돌입하기도 한다.

옷으로 인해 촉발된 좌절감이 정상적인 여성에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키고 이로 인해 빈혈, 영양 결핍, 그리고 탈모현상, 심지어 거식증 등의 문제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의류업체가 사이즈를 지나치게 작게만 만드는 것이 사소한 문제라고 넘겨서는 안된다. 의류 사이즈에 대한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 쓸데없이 여성들이 좌절감을 갖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 ▲유일숙·광주시 동구 수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5급수' 영산호 수질 개선대책 서둘러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영산호 수질오염도는 충격적이다. 환경부의 발표와는 달리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오염이 심각한 것이다. 국가관리 하천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환경 당국의 무신경이 한심스럽다.

조사 결과, 영산호 상류 일부 지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농업용수 수질 기준(4급수)인 8ppm을 넘었다. 부영양화에 영향을 미치는 총인(T-P)과 총질소(T-N)도 대부분의 지점에서 5급수를 초과했다. 몽탄대교 부근은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6등급이었다.

주민들의 위생과 밀접한 대장균군은 호소 수질기준인 5천군수/100㎖를 4배 이상 초과한 최대 2만4천200군수/100㎖까지 측정됐다. 사람이 물과 접촉하면 설사나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다. 유해물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형어도 발견됐다. 영산호는 '죽음의 호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영산호 수질오염은 농어업을 비롯 산업 전반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5급수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역점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배후지역인 만큼 2급수는 유지돼야 한다는 전남도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수질개선대책으로 영산호 하구둑을 개방해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거론돼 왔던 토사 준설방안은 폐기했다. 토사준설은 사업비가 1조원 이상 드는데다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영산호 수질조사와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수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안은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수질오염을 심각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광주컨벤션뷰로, 도시 활성화 기대된다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 전담기구인 '광주컨벤션뷰로(Gwangju Convention & Visitors Bureau(GCVB)'가 출범했다. 광주컨벤션뷰로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컨벤션뷰로의 설립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다.

광주컨벤션뷰로는 광주의 열악한 컨벤션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컨벤션산업은 관광·레저, 숙박·유흥, 교통·통신 등 관련산업을 포함하는 종합산업이자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는 지식기반 핵심산업이다. 광주의 미래비전인 문화중심도시와 광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가전, 자동차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됐다.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교육, 국제회의 유치 사업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과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와 박람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정보 수집과 배포, 국내외 관광산업의 육성, 홍보 등의 업무를 맡게 돼 광주가 국제회의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문제는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다. 광주의 컨벤션산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2006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와 2007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개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유치에 성공한 국제회의는 지난 2004년 2건, 2005년 3건, 2006년 8건에 불과하다.

광주컨벤션뷰로는 낙후되어 있는 컨벤션산업을 활성화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광주가 국제 전시 및 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역량 강화와 함께 숙박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눈앞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無 等 鼓

'체전스타' 음식

전국체전은 '전 국민의 체전'이 아니다. 선수들만 전국에서 모였을 뿐 전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한 지 오래됐다. 프로스포츠에 가려 개최도시 주민들과 아마추어 체육인들,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해버린 지 10년도 넘었다. 시대흐름이 그런 것일뿐, 누굴 탓할 일도 아니다.

지난 14일 폐막한 제88회 광주 전국체전도 썩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수영의 박태환과 역도의 장미란 등 '최고의 스타'들이 출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분위기를 살려주었고 스포츠의 감동을 선물했다.

대회기간 인기없던 역도경기장은 장미란을 보기 위해 몰린 관중으로 들썩거렸다. 장미란의 동작, 호흡 하나마다 관중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장내 아나운서가 "역도는 시끄러우면 경기를 할 수 없다. 조용히 해 달라"는 멘트를 여러차례 반복하기까지 했다.

박태환이 출전한 염주수영장은 더욱 북적였다. 좁은 수영장은 1천여명의 관중들로 미어터졌고 팬들은 인터뷰 소리가 안들릴 정도로 열광이었다.

박태환이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자유형 100m에서 50초대를 깨뜨릴 수 있을지 여부였다. 한국수영은 김봉조 전 대한수영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이 한국의 수영기록을 공식으로 관리하기 시작한지 17년만인 지난 1963년 동아수영대회에서 59초10으로 1분대를 깬 이후, 무려 44년동안 50초의 벽안에 갇혀 있었다. 박태환은 이번 체전에서 49초32로 터치패드를 힘차게 찍으며 한국수영의 오랜 숙제를 풀었다.

이번 광주체전에서 또 다른 '최고'는 광주의 음식이었다. 타지역 선수, 임원단은 물론 해외동포 선수단 모두 이구동성으로 광주의 음식에 찬사를 보냈다. '음식이 금메달감'이라며 '광주의 테마를 음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충고까지 하고 갔다.

그러나 음식 외에 특별한 감동이나 기억이 없이 그들이 떠났다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FA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A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업2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